

가정 경제의 변화에 대한 지각과 중간체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프로파일

문 경 숙* 김 중 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가정 경제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간체계(mesosystem)의 유형을 찾아내고,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이 정서프로파일에서 나타내는 차이를 밝혀보고자 수행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중·고등학생 388명(남학생 149명, 여학생 238명)을 대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의 지지(support), 정서 상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의 지지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를 군집분석하여 중간체계의 유형을 ‘안정적 중간체계’, ‘미온적 중간체계’, ‘불안정 중간체계’로 분류하였다. 지난 1년간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고 인식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정서프로파일의 군집 간 차이를 더 많이 나타내었다. 가정경제가 악화된 집단의 정서프로파일을 살펴본 결과, 화목한 가족분위기와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가 있는 ‘안정적 중간체계’ 군집은 비록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온적 중간체계’의 경우는 가족, 친구, 교사와 미약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으로 이들의 정서프로파일은 ‘불안정 중간체계’ 군집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불안정 중간체계’ 군집은 가족 및 친구로부터의 지지는 ‘미온적 중간체계’ 군집보다 높지만 교사와의 관계는 매우 낮은 학생들의 집합으로서 이 두 군집의 정서프로파일이 비슷하다는 것은, 결국 어느 하나의 미시체계에 강한 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교사와의 관계가 매우 취약한 경우,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소년의 정서 발달은 부정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가정 경제의 변화, 정서프로파일, 군집분석, 중간체계

한국에서 2008년 후반부부터 불어 닥친 경제위기 상황은 가정의 경제위기
기 상황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은 가정의 경제위기
로 연결되면서 가족 구성원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

* 교신저자: 문경숙, E-Mail: moonks64@gmail.com

* 본 논문은 한국발달심리학회 2009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를 던져놓았다.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는 물질적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와 행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서상태를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경제 위기 상황과 빈곤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빈곤 연구 결과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빈곤 환경과 청소년의 발달을 살펴본 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 후, 본 연구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연구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동안 빈곤과 청소년의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빈곤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Conger와 Elder(1994)의 가정경제 스트레스모델(FESM: Family Economic Stress Model)이다. Conger와 Elder(1994)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적응상의 문제점이 관련이 있음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은 부모의 우울 정서를 야기하고, 이것은 결혼 생활의 갈등과 자녀 양육의 문제로 연결되며, 결국에는 청소년 자녀의 부정적인 발달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Conger와 Elder(1994)가 제안한 FESM 모델은 다양한 대상을 통하여 검증이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김진이(2009)가 이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고, Solantaus, Leinonen 과 Punamäki (2004)는 핀란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

빈곤이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청소년의 여러 가지 발달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연구되어져 왔는데, 빈곤이 청소년의 외재화문제와 관련된다는 연구(김순규, 이재경, 2007; 오경자, 문경주, 2006; 최윤정, 이시연, 2006;

McLeod & Shanahan, 1993; Sampson & Laub, 1994; Votruba-Drzal, 2006)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관련된다는 연구(김은이, 오경자, 2006; 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 2005; Duncan & Brooks-Gunn, 2000; McLeod & Shanahan, 1993)가 있다. 이 연구들은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협하는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작용하는 기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빈곤이 제 3의 변인으로 매개되어 영향을 미치든가 혹은 제 3의 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빈곤이 다른 변인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빈곤이 가족 내에서의 관계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청소년자녀의 발달과 관련이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김순규, 이재경, 2007; 김진이, 2009; 오경자, 문경주, 2006; 이경혜, LeBlanc, 심희옥, 2006; 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 Johnson & Krueger, 2006), 빈곤이 제 3의 변인과 상호작용하는 경우는 특정 변인이 존재할 때 빈곤의 악영향이 더 가중되거나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최윤정, 이시연, 2006).

최근엔 빈곤이 부정적인 맥락변인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중요한 연구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발달 양상을 나타내도록 하는 보호요인을 찾아냄으로써, 빈곤 청소년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다가서려는 움직임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은 청소년 자신이 초래한 결과라기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맥락 변인이므로 청소년의 노력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외부조건이다. 따라서 빈곤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발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변인에 대한 탐구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적응유연성(resiliency)이라는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고 동

일한 빈곤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발달결과를 나타내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찾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보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김승규, 이재경, 2007), 책임감, 민주적 양육태도, 적응유연성(박현선, 1998),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성(Johnson & Krueger, 2006), 부모와 또래의 사회적 지지(오경자 등, 2005), 모(母)감독(최윤정, 이시연, 2006) 등이다. 이러한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빈곤이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전에 혹은 빈곤의 부정적인 역할을 차단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심리적인 무기들로써, 역경 속에서 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들이다.

빈곤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보호요인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 중에는 잘 적응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곧 빈곤을 받아들이는 폭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삶의 여정이 인생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역경 속에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빈곤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연구한 학자들은(김수정, 2008; 박현선, 1998; 정익중, 2009; 최윤정, 권현진, 이시연, 2004) 빈곤청소년을 보는 시각을 부적응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적응의 대상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

한국의 IMF 경제위기 혹은 그와 유사한 국가적 경제위기는 그 국가에 살고 있는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정 내 경제위기는 역사적으로 특정 시점에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

체계(chronosystem)로, 빈부의 격차를 막론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ronfenbrenner, 1979), 시대적 변인으로서의 경제위기가 성장하는 청소년의 발달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인가 비빈곤인가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이 청소년의 정서상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정경제의 악화를 연구들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경제상황과 청소년의 발달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삶의 질과 관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김범준, 박영숙, 전영민, 2005; Johnson & Krueger, 2006).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주관적인 지표가 개인의 삶에 더 결정적이기 때문에(김범준 등, 2005),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가정 경제의 악화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은 중요한 연구변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 가정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간에 나타나는 정서상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변인 중심적 접근 보다는 유형 중심적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이 세 가지 미시체계(microsystem), 즉 가족, 친구, 교사와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질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관계의 유형을 찾아내고,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이 정서프로파일에서 나타내는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독립된 미시체계 각각의 역할보다는 두 개 이상의 미시체계가 함께 움직이며 영향을 미치는 중간체계(mesosystem)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빈곤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경제적 어

려움을 스트레스 원(source of stress)으로 보고 경제적 스트레스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상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Cohen & Willis, 1985).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간의 결속력이 약하고, 청소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서적 지원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cLoyd, Aikens, & Burton, 2007). 빈곤이라는 환경 자체가 주는 영향보다는 빈곤으로 인한 부모의 불성실한 양육태도나 심리적 불안정성이 빈곤 자녀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Conger와 Elder(1994)의 모형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가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빈곤을 위협요소로 규정하는 연구들은 가족 중 적어도 한 사람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유도하는 보호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현선, 1998). 이처럼 청소년의 긍정적인 심리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볼 때, 가정 경제의 악화를 경험한 청소년의 가족관계의 질과 정서변화에 대한 연구는 경제 상황과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준다고 볼 수 있다.

친구와의 관계도 빈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화 기구(agent)임이 밝혀진바 있다(최윤정 등, 2004). 친구 관계의 질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는 청소년기이다(Berndt, 1996). 청소년기에 친구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과 연결되어진다(Merten, 1996).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를 털어 놓는 주 대상은 친구이기 때문에(Pombeni, Kirchler, & Palmonari, 1990), 청소년은 자기 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처지를 동정해 주는 친구가 있을 경우,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발달에 친구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학

자들(정영주, 정영숙, 2007; 조은정, 2008; Bishop & Inderbitzen, 1995; Crosnoe & Needham, 2004; Hartup, 1996; Jaccard, Blanton, & Dodge, 2005; Keefe & Berndt, 1996)이 언급한 바 있지만, 친구와의 관계의 질이 경제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에게 친구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 놓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동료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관계 자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심리정서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오경자 등, 2005)를 참고하여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중요한 관계변인으로 상정하였다.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교사와의 관계의 질을 살펴 본 연구도 미흡하다. 교사는 청소년이 가정 밖에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 친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미시체계이다. 위계적인 인물로서의 교사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는 교사는 청소년에게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서적 보살핌은 스트레스를 수반한 학교 상황에서 학생에게 또 다른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종백과 김남희(2009)는 교사의 접근가능성이 교사-학생 간의 애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생이 교사에게 심리적인 접근성(psychological availability)을 느낄 경우, 부모와 친구 외에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교사를 지각하게 되고(김종백, 김남희, 2009), 이러한 지각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이 될 수 있다. 교사와 형성한 긍정적인 관계는 학력

기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발판을 제공하며 (Hamre & Pianta, 2001),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보살핌이 학령기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의 지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미시체계 중의 하나로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시켰다.

연구 문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있었던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간에 청소년의 정서 발달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세 가지 미시체계인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의 질을 바탕으로 중간체계의 유형을 나누고, 중간체계 유형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서 상태가 경제위기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중간체계 유형은 어떤 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중간체계 유형에 따른 정서프로파일은 가정 경제의 악화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의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의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참여한 학생은 총 388명이며, 성별로는 남학생 149명, 여학생 238명이 포함되어 있다.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187명, 고등학생이 201명이며, 설문조사 참여 학생의 부모님은 대부분 결혼 혹은 재혼한 상태(314명, 81.1%)이며, 참여 인원 중 53명(13.7%)의 학생의 부모님이 이혼 혹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47.2%가 고졸 이하, 35.3%가 대졸 이상으로, 어머니의 학력은 58.8%가 고졸 이하, 26.1%가 대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의 경우는 31.2%가 매우 어렵거나 어려운 상태라고 응답하였고, 매우 잘 살거나 잘 사는 경우는 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9.8%의 학생이 보통이라고 보고하였다.

측정도구

지난 1년간(2008년-2009년)* 있었던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의 경험을 추출하기 위하여 설문지의 각 문항마다 ‘최근(지난 1년간)’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설문지에는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인과 함께 가정 경제상태의 변화를 측정하는 문항, 미시체계와의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의 지지에 관한 문항, 그리고 정서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세 가지 미시체계들, 즉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의 지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중간체계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에 사용된 세 가지 미시체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 경제위기 상황은 2008년 후반부부터 시작되었고 본 설문조사는 2009년 10월에 실시되었으므로 설문지 상에는 ‘지난 1년간’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었고,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분포

		명(%)*	변화 없음/좋아짐(%)**	나빠짐(%)**
성별	남	149(38.5)	86(57.7)	63(42.3)
	여	238(61.5)	122(51.3)	116(48.7)
학교	중	187(48.2)	103(55.1)	84(44.9)
	고	201(51.8)	106(52.7)	95(47.3)
성적	상	43(11.1)	21(48.8)	22(51.2)
	중	240(61.9)	130(54.2)	110(45.8)
	하	105(27.0)	58(55.2)	47(44.8)
가정 형편	매우 어려운편이다	11(2.8)	3(27.3)	8(72.7)
	어려운 편이다	110(28.4)	36(32.7)	74(67.3)
	보통이다	232(59.8)	142(61.2)	90(38.8)
	잘 사는 편이다	32(8.2)	26(11.2)	6(88.8)
	매우 잘 사는 편이다	3(0.8)	2(66.7)	1(33.3)
부모 결혼	결혼재혼	314(80.9)	174(55.4)	140(44.6)
	이혼	42(10.9)	19(45.2)	23(54.8)
	별거	11(2.9)	4(36.3)	7(63.7)
	사별	6(1.6)	2(33.3)	4(66.7)
	모름	14(3.7)	10(71.4)	4(28.6)
부교육	무학	1(0.2)		1(100)
	초졸	6(1.5)	4(66.7)	2(33.3)
	중졸	17(4.4)	11(64.7)	6(35.3)
	고졸	159(41.0)	77(48.4)	82(51.6)
	대졸	90(23.2)	47(52.2)	43(47.8)
	대학원졸	47(12.2)	26(55.3)	21(44.7)
	모름	68(17.5)	44(64.7)	24(35.3)
모교육	무학	1(0.2)		1(100)
	초졸	2(0.5)	2(100)	
	중졸	24(6.2)	14(58.3)	10(41.7)
	고졸	201(51.8)	99(49.3)	102(50.7)
	대졸	72(18.6)	36(50)	36(50)
	대학원졸	29(7.5)	20(69.0)	9(31.0)
모름	59(15.2)	38(64.4)	21(35.6)	

* 세로의 합이 100%, **가로의 합이 100%

가족 지지(family support)

가족 지지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지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고충을 터놓고 이야기 하거나, 역경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Vinokur, Price와 Caplan(1996)이 사용한 사회지지 받기(Receiving social support) 문항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족지지 측정 변인은 총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뢰도 계수는 .876이다. 가족지지 변인은 ‘우리 가족은 서로 격려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 고민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

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 지지(peer support)

친구 지지는 가정 밖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로서, 친구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을 때 공감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친구가 있어서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친구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은 Conger 등(1992)의 연구에서 사용한 3문항에 연구자가 3문항을 추가하여 총 6문항을 구성하였다.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와 내가 의지할 만한 친구가 있는지, 나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친구가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은 Conger 등(1992)이 사용한 문항에서, 친구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친구로부터 왕따 당하고 있는지,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은 연구자들이 추가한 문항이다. 친구관계의 신뢰도 계수는 .782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로부터 심리적인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 지지(teacher support)

교사 지지는 청소년이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지지로서, 교사가 학생의 요구에 민감하여 학생에게 심리적 보살핌을 제공할 때, 학생은 교사에게 자신이 가진 문제들을 상의하고 교사로부터 도움과 격려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교사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위기가 있었던 지난 1년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배려나 칭찬, 격려 등을 받았는지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

수가 높을수록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교사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55이다.

한국형 정서상태 측정도구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 등(2008)이 개발한 한국형 정서상태 측정도구(KMSI: Korean Mood Stat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KMSI는 총 30문항이며 6개의 하위변인 각각에 5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응답자의 정서상태가 간단하게 진술되어 있고(예, 고독하다, 외욕이 넘친다)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에 그 정도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6개의 하위변인은 화-적대감, 열정-활동성, 우울-공허감, 수치심-부끄러움, 평안-따뜻함, 불안-걱정이며 각 하위변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26, .831, .849, .763, .755, .806이다.

분석

먼저 지난 1년간 가정의 경제상태가 나빠졌다고 인식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를 측정하는 문항에 포함된 4개의 응답(이전보다 좋아졌다, 이전과 다름없다, 이전보다 약간 안 좋아졌다, 이전보다 많이 안 좋아졌다)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좋아졌다(48명, 12.4%)’와 ‘이전과 다름없다(161명, 41.5%)’는 경제상태가 변함없는 집단으로, ‘이전보다 약간 안 좋아졌다(133명, 34.3%)’와 ‘이전보다 많이 안 좋아졌다(46명, 11.9%)’는 경제상태가 나빠진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의 지지 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중간체계의 관계 유형을 찾아내었다. 다음으로는 군집으로 묶여진 집단 간에 정서상태 측정도구에 나타난 응답에 있어

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고, 군집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중간체계 유형 분류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의 지지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몇 개의 중간체계 유형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덴드로그램에 대한 고찰과 군집에 대한 해석의 용이성을 바탕으로 군집의 개수를 세 개로 나누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판단되었고, 세 가지 군집의 중간체계 유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군집은 교사변인의 점수는 높지 않지만

가족과 친구변인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학생들로서 전체의 약 35.3%(136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 군집에 해당하였다. 이 군집에 속하는 학생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자기 주변에 마음을 기댈 친구가 있는 정도가 높은 집단이므로 '안정적 중간체계(secure mesosystem)'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군집은 가족, 친구, 교사 세 가지 미시체계로부터 미온적인 심리적 지지를 받고 있는 집단으로서 전체의 약 35.8%(138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 군집에 속하는 학생들은 가족 구성원, 친구, 교사 그 어느 누구와도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지 못한 집단이므로 '미온적 중간체계(uninvolved mesosystem)'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군집의 두드러진 특징은 교사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가 매우 미약한 학생들로서 전체 학생의 약 28.8%(118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 군집에 속하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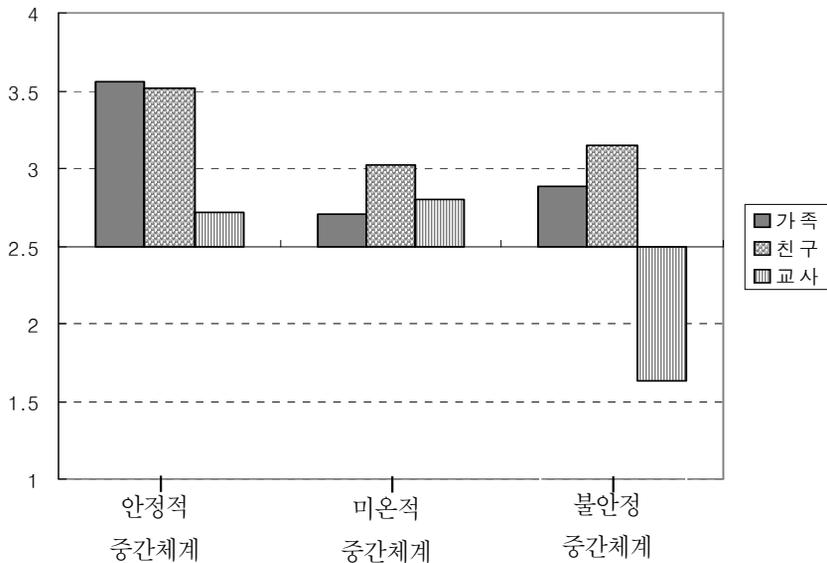


그림 1. 중간체계 군집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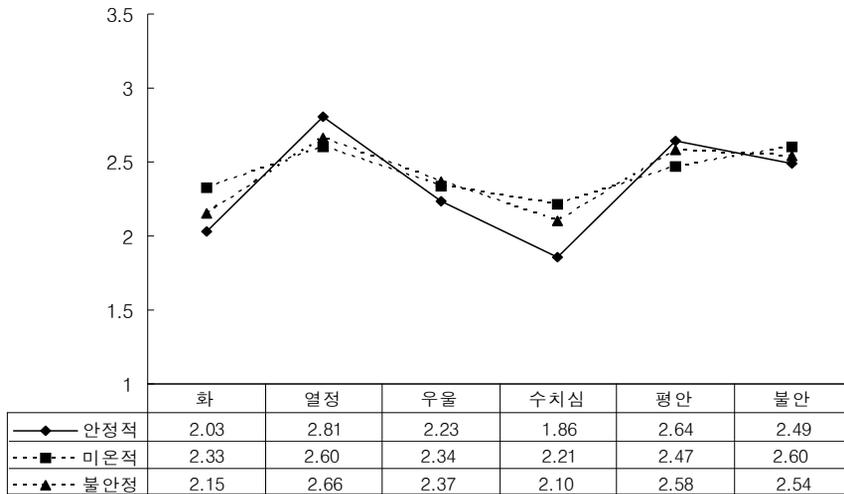


그림 2. 가정의 경제상태가 변함없는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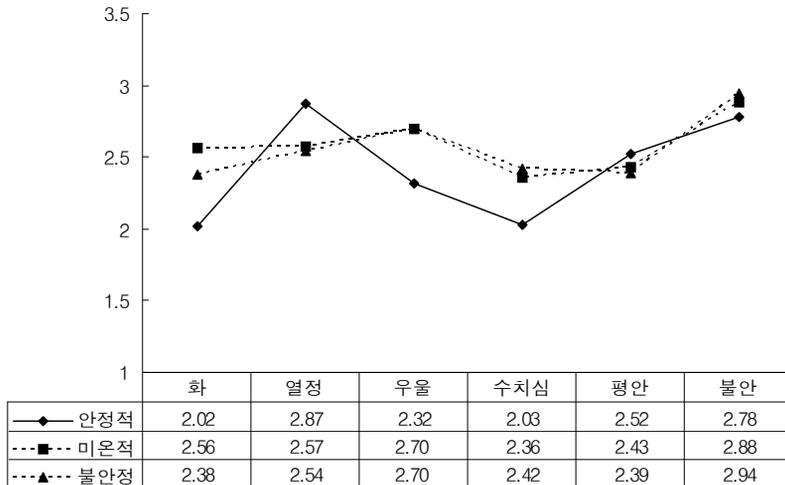


그림 3. 가정의 경제상태가 나빠진 집단

은 나머지 두 군집과 비교했을 때 교사변인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교사로부터 칭찬이나 격려를 받는다거나 교사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것과 같은 세심한 배려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낮은 군집이다. 여기에 더하여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와 친구로부터의 지지도 첫 번째 군집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불안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불안정 중간체

계(insecure mesosystem)'로 명명하였다.

군집에 따른 정서상태의 차이

중간체계의 유형을 바탕으로 나누어진 군집 간에 정서상태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Box M 값을 구해 본 결과 공분산행렬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됨을 알 수 있었다(경제상태 변함없는 집단: $F=52.99, p>.10$, 경제상태가 나빠진 집단: $F=43.40, p>.10$). 세 가지 중간체계 군집에 따른 정서상태 하위변인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상태 변함없는 집단: Willks $\Lambda=.88, F=2.25, p<.01$, 부분 $\eta^2=.06$; 경제상태가 나빠진 집단: Willks $\Lambda=.80, F=3.48, p<.001$, 부분 $\eta^2=.11$). 다변량분석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한 군집 간 정서상태의 변화는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된 군

집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경제위기를 겪었던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가정의 경제상태가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집단이 군집 간 차이를 더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변함없는 집단의 경우 세 가지 군집의 정서프로파일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6가지 정서 하위영역 중에서 화-적대감과 수치심-부끄러움의 두 가지 영역을 제외하고는 군집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2, 표 2 참조). 사후검증 결과를 참고해 보면, 화-적대감 영역에서는 '안정적 중간체계' 군집과 '미온적 중간체계' 군집의 평균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수치심-부끄러움은 세 군집이 모두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중간체계' 군집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년간(2008-2009) 경제상태가 나빠진 집단

표 2. 가정의 경제상태가 변함없는 집단

정서 하위변인	군집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LSD
화-적대감	안정적	71	2.03	.69	3.47*	2>1
	미온적	75	2.33	.73		
	불안정	61	2.15	.62		
열정-활동성	안정적	71	2.81	.56	2.46	1>2
	미온적	75	2.60	.60		
	불안정	61	2.66	.60		
우울-공허함	안정적	71	2.23	.73	.80	
	미온적	75	2.34	.68		
	불안정	61	2.37	.55		
수치심-부끄러움	안정적	71	1.86	.48	7.75**	2>1 3>1
	미온적	75	2.21	.60		
	불안정	61	2.10	.52		
평안-따뜻함	안정적	71	2.64	.52	1.98	
	미온적	75	2.47	.56		
	불안정	61	2.58	.48		
불안-걱정	안정적	71	2.49	.65	.57	
	미온적	75	2.60	.65		
	불안정	61	2.54	.59		

* $p <.05$, ** $p <.01$

표 3. 가정의 경제상태가 나빠진 집단

정서 하위변인	군집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LSD
화-적대감	안정적	65	2.02	.65	9.81***	2>1
	미온적	63	2.56	.65		3>1
	불안정	50	2.38	.79		
열정-활동성	안정적	65	2.87	.58	5.66**	1>2
	미온적	63	2.57	.59		1>3
	불안정	50	2.54	.66		
우울-공허함	안정적	65	2.32	.75	7.03**	2>1
	미온적	63	2.70	.54		3>1
	불안정	50	2.70	.67		
수치심-부끄러움	안정적	65	2.03	.56	8.30***	2>1
	미온적	63	2.36	.54		3>1
	불안정	50	2.42	.62		
평안-따뜻함	안정적	65	2.52	.55	.97	
	미온적	63	2.43	.48		
	불안정	50	2.39	.57		
불안-걱정	안정적	65	2.78	.65	1.20	
	미온적	63	2.88	.52		
	불안정	50	2.94	.61		

** $p < .01$, *** $p < .001$

의 경우는 군집 간의 차이가 더 명확한데, 정서상태의 하위 영역에서 평안-따뜻함과 불안-걱정을 제외한 4가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그림 3, 표 3 참조). 그림 3을 살펴보면 ‘미온적 중간체계’ 군집과 ‘불안정 중간체계’ 군집의 정서프로파일이 비슷하고 ‘안정적 중간체계’ 군집이 나머지 두 개의 군집과 대비되는 프로파일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와 그림 3을 비교해 보면 경제상태가 변함없는 집단 보다는 경제상태가 나빠진 집단의 경우, 가족과 친구관계가 긍정적이면 화, 우울, 수치심과 같은 부적 정서를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며, 열정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확률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 관계의 긍정적인 역할은 경제상태가 변함없는 집단보다는 경제상태가 나빠진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지난 1년간(2008-2009) 불어 닳친 경제위기 상황이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의 지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세 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이 군집들 간에 정서프로파일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해보았다. 본 연구의 취지에 맞도록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지난 1년간 가정경제의 변화에 따라 두 집단으로 먼저 분류한 후 후속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난 1년간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고 인식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정서프로파일의 군집 간 차이를 더 많이 나타내었다. 가정경제가 악화된 집단의 정서프로파일을 살펴본 결과, 화목한 가족분위기와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가 있는 ‘안정적 중간체계’ 군집은 비록 가정경제가 악

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이 군집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는 양호하지만, 교사와의 관계는 취약한 군집이라는 것이다. 그림 1에 제시된 군집유형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전반적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취약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향성은 ‘안정적 중간체계’ 군집에도 반영되어 있다. 교사와의 관계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서프로파일이 양호한 것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세 가지 미시체계의 역학 관계, 즉 중간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규명은 추후 연구에서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사와 학생의 만남이 대부분 지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친구, 교사라는 사회화 기구 간의 복합적인 기제에 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각각의 미시체계에 대한 분석이 아닌 미시체계들 간의 복합적인 작용에 대한 분석, 즉 중간체계에 대한 분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의 질을 동시에 고려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다. ‘미온적 중간체계’의 경우는 세 가지 사회화 기구와 약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으로 이들의 정서프로파일은 ‘불안정 중간체계’ 군집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불안정 중간체계’ 군집은 가족 및 친구로부터의 지지는 ‘미온적 중간체계’ 군집보다 높지만 교사와의 관계는 매우 낮은 학생들의 집합이다. 이 두 군집의 정서프로파일이 비슷하다는 것은 결국 어느 하나의 미시체계에 강한 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교사와의 관계가 매우 취약한 경우,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소년의 정서 발달은 부정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소원한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혼자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을 깊어지게 하고 이것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확률을 증가시킴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 다른 논의 사항은 세 가지 군집 모두 교사 지지 점수가 낮다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그림 1 참조). 세 가지 중간체계 군집유형의 교사 지지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교사 지지의 높고 낮음이 반영된 정서프로파일을 얻을 수 없었다. 교사 지지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은 ‘미온적 중간체계’ 군집과 ‘불안정 중간체계’ 군집의 정서프로파일이 ‘안정적 중간체계’ 군집의 프로파일과 다른 이유가 낮은 교사 지지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방해한다. 왜냐하면 이 두 군집의 교사 지지 점수가 나머지 한 군집의 교사 지지 점수보다 낮기는 하지만 가족과 친구 지지의 점수도 동시에 낮기 때문이다. 특히 ‘불안정 중간체계’ 군집의 교사 지지 점수가 다른 군집과 비교하여 월등히 낮지만(부록 1 참조), 이 군집의 정서프로파일이 ‘안정적 중간체계’ 군집과 차이가 나는 것이 교사 지지의 미약 때문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상의 결과로 우리는 비록 가정의 경제상태가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정서적 공감 및 유대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가 있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정이 빈곤한가 혹은 부유한가라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이분법적인 시각보다는, 경제 위기로 가정 경제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먼저 고려한 후, 그 변화의 과정을 경험한 청소년이 1차적인 미시체계와 맺어가는 관계적 역동성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는

지를 살펴본 연구였다. 청소년이 서로 다른 미시체계와 동시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측면이 경제위기라는 상황에 반응하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메카니즘을 다르게 함을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였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는 또 한 가지 측면은 변인중심의 연구에서 유형 중심의 연구로 방향을 바꾸어 분석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미시체계(microsystem)들의 연합효과(joint effect)를 중간체계로 분류한 Bronfenbrenner(1979)의 제안에 따라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의 질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중간체계 유형을 분류하고 이것을 분석의 틀로 삼음으로써 세 가지 미시체계를 동시에 고려해보고자 하였다. 개별 미시체계의 영향보다는 청소년의 주변에 항상 중요한 사회화 에이전트(socialization agent)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 교사로부터의 지지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청소년의 환경에 대한 탐구를 더 넓게 확장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본 연구는 한 번의 설문 조사로 가정 경제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간의 정서프로파일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지만,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온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은 다분히 기질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Wadsworth & Berger, 2006)을 감안해 본다면, 더 정확한 정서프로파일 분석을 위해서는 경제 위기 이전의 정서 프로파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가정 경제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기간의 중요성도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McLeod와 Shanahan(1993)은 빈곤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빈곤에 있었던 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현재의 빈곤여부만으로 그 둘 간

의 관계에 대한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빈곤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이들이 우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지속적 빈곤과 간헐적 혹은 단기간의 빈곤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익중(2009)도 빈곤의 지속 유형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만성형 빈곤이 위험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보다는 빈곤의 지속이 중요한 연구 변인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지속적 혹은 만성적 빈곤보다도 더 스트레스상황인 것은 가족의 수입 감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빈곤 상황에 오랜 기간 노출된 청소년은 오히려 빈곤에 적응하는 기제를 발달시킬 수 있으나, 갑자기 수입의 감소를 경험할 경우에는 이전에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못하게 되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가 야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Eamon, 2001; Elder & Caspi, 1988).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는가 아닌가 라는 측면으로 응답자를 나누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경제 상황이 악화된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었는가 하는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더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범준, 박영숙, 전영민 (2005). 경제적 어려움, 대처행동, 가족간 의사소통이 주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37-59.
- 김수정 (2008).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 결식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

- 지학, 25, 9-38.
- 김순규, 이재경 (2007).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4(5), 75-98.
- 김은이, 오경자 (2006). 빈곤 가정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 : 1년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381-396.
- 김종백, 김남희 (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4), 697-714.
- 김진이 (2009). 경제적 압박감이 빈곤아동의 학교 생활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 위험변인과 부정적 부모역할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8, 7-43.
- 박현선 (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Resilience) 발달메커니즘. *청소년학연구*, 5(3), 147-165.
- 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 (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53-71.
- 오경자, 문경주 (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59-76.
- 이경혜, John C. LeBlanc, 심희옥 (2006). 빈곤아동의 학업수행 부진 발생요인의 예측과 조기 중재모형 개발. *정서·행동장애연구*, 22(1), 175-196.
- 정영주, 정영숙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지 간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67-88.
- 정익중 (2009). 빈곤과 비행 발달궤적의 역동적 관계. *아동학회지*, 30(3), 113-125.
- 조은정 (2008).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구 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5(6), 299-322.
- 최윤정, 권현진, 이시연 (2004). 빈곤 청소년의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1(3), 531-550.
- 최윤정, 이시연 (2006). 빈곤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1, 89-113.
- Berndt, T. J. (1996). Friendships in adolescence. In N. Vanzetti, & S. Duck. *A lifetime of relationships* (pp. 182-212). Brooks /Cole Publishing Company.
- Bishop, J. A., & Inderbitzen, H. M. (1995). Peer acceptance of friendship: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 to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4), 476-489.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이영 역, <<인간발달 생태학.>> 교육과학사, 1995).
- Cohen, S., & Willi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3), 526-541.
- Conger, R. D., & Elder, G. H. J. (1994).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New York: Aldine

- De Gruyter.
- Crosnoe, R., & Needham, B. (2004). Holism, contextual variability, and the study of friendships in adolescent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5*(1), 264-279
- Duncan, G. J., & Brooks-Gunn, J.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1), 188-196.
- Eamon, M. K. (2001).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 ecological systems analysis. *Social Work, 46*(3), 256-264.
- Elder, G. H., J., &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25-45.
- Hamre, B. K., & Pianta, R. C. (2001). Early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trajectory of children's school outcomes through eight grade. *Child Development, 72*(2), 625-638.
-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 1-13.
- Jaccard, J., Blanton, H., & Dodge, T. (2005). Peer influence on risk behavior: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a close friend.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135-147.
- Johnson, W., & Krueger, R. F. (2006). How money buys happiness: Genetic and environmental processes linking finance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4), 680-691.
- Keefe, K., & Berndt, T. J. (1996). Relations of friendship quality to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6*(1), 110-129.
- Lee, S. M., Moon, K., Puig, A., Cho, E., Lee, S. Y., back, S. H., & Woo, Y. K. (2008). Development and initial psychometrics of the Korean Mood State Inventory.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1*(1), 42-50.
- McLeod, J. D., & Shanahan, M. J.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351-366.
- McLoyd, V. C., Aikens, N. L., & Burton, L. M. (2007). Childhood poverty, policy, and practice. In K. A. Renninger & I. E. Siegel.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V.) (pp.700-775). John Wiley & Sons, Inc.
- Merten, D. E. (1996). Visibility and vulnerability: Responses to rejection by nonaggressive junior high school boy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6*(1), 5-26.
- Pombeni, M., Kirchler, E., & Palmonari, A. (1990). Identification with peers as a strategy to muddle through the troubles of the adolescent years. *Journal of Adolescence, 13*(4), 351-369.
- Sampson, R. J., & Laub, J. H. (1994).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A new loo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65*(2), 523-540.
- Solantaus, T., Leinonen, J., & Punamaki, R. (2004). Children's mental health in times of economic recession: Replication and extension

- of the family economic stress model in Finland. *Developmental Psychology*, 40(3), 412-429.
- Vinokur, A. D., Price, R. H., & Caplan, R. D. (1996).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166-179.
- Votruba-Drzal, E. (2006). Economic disparities in middle childhood development: Does income matter? *Developmental Psychology*, 42(6), 1154-1167.
- Wadsworth, M. E., & Berger, L. E. (2006). Adolescent coping with poverty-related family stress: Prospective predictors of coping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1), 57-70.
-

1차 원고 접수: 2010. 04. 09

수정 원고 접수: 2010. 05. 17

최종 게재 결정: 2010. 05. 18

Perceived Home Economic Status Change, Mesosystem Patterns, and Emotional Profile among Korean Adolescents

Kyoung-Suk Mo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Jong-Baeg Kim
Hongik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motional profile among adolescents experiencing home economic status change. Total of 388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included items asking the experience of home economic status change over the past one year, the degree of emotional support from microsystems(family, peers, and teachers), and mood state. Three mesosystem patterns have been identified from the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support from microsystems: secure, uninvolved, and insecure. Adolescents of secure mesosystem have relatively healthy mood state under economic hardship. On the other hand, adolescents of uninvolved and insecure mesosystem showed similar mood state suggesting that not having strong emotional bond with at least one of microsystems or extremely weak emotional bond with teachers lead to negative mood profile under the condition of home economic status change. The importance of emotional bond with microsystems were discussed based on research results.

Keywords: home economic status, emotional profile, cluster analysis, mesosystem

부 록

부록 1. 가족, 친구, 교사지 지 변인의 군집 간 차이

구분	군집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i>F</i>	<i>LSD</i>
가족	안정적	136	3.56	.32	148.22***	1>3>2
	미온적	138	2.70	.46		
	불안정	111	2.89	.51		
친구	안정적	136	3.52	.33	50.12***	1>3>2
	미온적	138	3.03	.44		
	불안정	111	3.16	.50		
교사	안정적	136	2.73	.50	273.51***	1>3
	미온적	138	2.80	.35		2>3
	불안정	111	1.63	.43		

*** $p < .001$